획일적으로 수용된 다변화

小考 대학내 복식문화의 변천과 건전한 의생활

대학내 복식문화의 변천에 대해서 생각하자 몇가지 떠오르는게 있다.

연세대 앞 건널목에서 신호대기로 서 있으면 많은 남학생들이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길을 건너간다. 그런데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어도, 10년세월이 흘러 학생이 교수가 되어 돌아와 보아도, 그 집단적으로 무표정한 옷차림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적당히 길들고 적당히 평퍼짐한 청바지, 색깔도 모양도 다 다르긴 해도 아무 특별한 감흥이 일지 않는 셔츠와 자켓들, 그리고 고만고만한 신발과 가방들…

80년대 한참 학생운동이 뉴스의 중심이던 시절에 검정두루마기 한복차림의 남학생이 화면에 등장하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가 운동권의 지도학생인 줄 모두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머리에 띠 두른 학생은 학생회 간부일 것이고, 만약 그 옆에 지나가던 학생이 화려한 옷차림이면 모두들 저 학생은 우연히 괜히 끼여 찍혔을 거라고 생각하고…

뉴스위크지에 이화여대 교문앞에 서있는 여학생 몇명의 사진이 실리며, 마치 이들이 한국적 속물주의의 한 전형인 것처럼 그려졌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기사에 동의 했을 것이다. 사실 그 학생들은 그날 졸업사진 찍으려고 특별히 그런 차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들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보는 TV드라마의 여대생들의 옷차림이 그 뉴스위크지에 실린 여대생의 옷차림과 비슷하다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서관 앞길에서 또는 학생식당의 한쪽 구석에서 가끔 너무나 낯익은 학생들을 마주칠때가 있다. 너무 낯익어서 마치 나의 오래된 친구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가 사라질 때가 있다. 나이는 나의 모습은 안보이니까 같이 그 학생들의 외모를 묘사한다면, 어느 시대에나 대학이라고 하는데 가면 있는, 젊고 풋풋한 것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꾸미지 않은 모습이라고나 할까…

나의 대학시절이던 70년대로부터 뛰쳐나온 것 같은 학생들을 요즘 가끔 본다. 이 70년대 복고풍이 최신 유행인 관계로 아직은 여학생들만 판탈롱에, 히피스타일 목걸이에 짧은 조끼로 멋을 부리고 있지만 이 유행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이번 여름쯤 서울 거리에 한국판 엘비스프레스리가 나타나지 말란 법도 없게 생겼다. 아직은 이런 예상이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뭔래 은근 슷찮 이상한 유행이 지나가기에 대학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또 있겠는가. 호기심과 치기에 가득찬 젊음이 모여있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러한 이유중의 하나가 여성한복은 어딘가 평양거리를 떠 올리게 하고 이는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게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남자한복이 백범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 같은 애국적 이미지를 이러한 일부 대학생들의 의복형태는 사회전반적인 가치 기준이 복식문화에 결대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자기성에 맞는 의상으로 획일성·모반성 탈피해야

90년대 들어 사회가 다변화되어간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한국사회는 더욱 다변화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변화의 필요성을 획일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대학에서 보게되는 나름대로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한다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대학생들을 보면 대개 어떤 틀이 있는 것 같다. "개성을 표현"하고 "다양하게 차린"그 모양에 어떤 획일성이 느껴지고 어딘가 모방한 작품이 주는 어색한 같은 것을 느낀다. 그들은 아직 의복을 통한 자기 표현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대학내의 건전한 복식문화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선 복식을 통한 자기표현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타인이나 세계와의 관계를 다. 이것은 옷에 관한 관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그 자체가 총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흔히 이야기 하듯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을 풍부하게 하면 그게 남에게 저절로 전해져서 그것이 그 인간의 매력이 되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인간적 매력이 있고 난 후 그 인간적 매력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알맞겠는지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글쓸 때 글의 주제에 따라 문체를 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각자의 인간적 매력과 그것이 스며나오는 그의 생활양식에 따라 독특한 복식스타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자기 독특한 한 스타일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글을 쓰는 경우에도 어떤 작가는 글의 내용에 따라 스타일을 나양하게 구사하고 다른 작가는 글의 주제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한 문체를 견지하는 경우가 있다. 복식에 있어서도 항상 한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소와 경우에 따라 아주 다른 여러가지 스타일을 다 잘 소화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각 개인의 개성의 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너무 일찍 한 스타일로 굳어 버리기 보다 시도해 보고 싶은 모든 스타일을 다 한번씩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기에게 잘 맞는 스타일을 찾을 수도 있고 자기표현의 폭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모색의 시간을 주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옷차림에는 사회가 좀 더 너그러운 것 같다.

광합성의 물질생산측면 고찰

최 현 섭
(문리대교수·생물학)

처음 내가 하려고 했던 공부는 식물학이 아니고 의학을 공부하여 의학도가 되고싶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인생의 운명 탓으로 돌리면서 한창 발전하면서 유망한 대학이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친구의 권유로 경희대학교 생물학과를 지망하여 생물학도가 되었다. 그런 이유로 식물과 더불어서 살며, 식물을 관찰하고 식물을 사랑하면서 식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38년이 흘러갔다.

식물경제학은 식물학과 경제학이 합쳐진, 당시로는 신학문이다. 이 학문을 식물학에서는 식물의 물질생산이라 한다. 이 물질생산에 대한 학문의 시조는 당시 멘델과의 코펜하겐 대학식물생리학자인 의 광합성산물은 주로 전분과 포도당인데 이 유기물질은 식물의 각 기관인 줄기, 뿌리 및 잎으로 배분이 된다. 이러한 식물의 잎에서 생산된 유기물질이 각 기관으로 얼마만큼씩 이동되는가를 연구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 과산해내는 물질의 양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S자 곡선이 형성된다. 그렇다면 어떻게하여 환경요인에 따라서 S자곡선의 형태는 달라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표지물(parameter)로서 상대성장율(RGR)의 개념이 성립되었으며, 상대성장율의 구성요소는 순동화율(NAR)과 엽면적비(LAR)이다. 식물의 물질경제에서는 상대성장율이 식물의 자본회전속도이고 순동화율은 식물의 생산적 기능이며 엽면적비는 식물공장의 규모와 크기를 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식물생리생태학을 강의한 셈이 되고 말았다. 식물의 경제활동을 하는 곳이 잎인데 잎속

잎속 생산기능 밝히는 식물경제학

Peter Boysen-Jensen(1932) 교수 이었다. 이것을 일본의 동경 대학의 Monsi교수가 발전시켰다. 식물이 살아가는데 유기물질의 합성과 분해가 이 특되면서 물질대사가 일어나는데 이 현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물질의 생산과 소비활동이라고 Boysen-Jenson교수는 언급하였다. 식물체내에서는 유기물질의 경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식물체에서의 생산활동은 광합성이라하고, 소비생활은 호흡작용이라한다. 식물의 물질경제적 활동으로 +요인이 작용하면 식물이 살면서 성장하게 되고, -요인이 작용하면 식물은 먹이경쟁으로 고사되면서 죽게 된다. 식물 제이다.

또 하나 나의 연구 분야에서 평생을 다룬 과제는 식물의 성장해석(또는 성장분석)이라는 연구이다. 식물체는 개체군이든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가 성장으로 표출되게 된다. 생태학에서는 환경요인으로 빛, 온도, CO_2의 농도, 무기영양 및 토양조건을 들 수 있다. 여느 환경요인이 작용해서 식물의 성장이 영향받았는지를 조사하면 매우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식물의 성장해석에도 경제적 개념이 적용된다. 식물은 물질이 복리식으로 증대되면서 성장한다. 다시 말해서 식물이 성장해 가면서 생 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비스러운 자연의 현상은 무궁무진하며 아직도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분야가 많다고 한다. 따로 물질생산적인 측면에서의 식물의 광합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새로운 과학적인 자료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15차 식물과학 국제회의(일본 Yokohama, 1993. 8. 28-9. 3)에 참석하려고 자료정리에 여념이 없다. 갑자기 내가하는 공부, 별로 일반인 학생에게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나열했으나 필자 자신은 매우 흥미를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과학적 탐구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80년대 옷 의미전달수단으로 이용

개성과 변화의 적절한 혼합필요

조 진 숙
(이대교수·의류직물학)

곳이 대학인데…

이렇듯 얼핏 떠오르는 이미지들만 이어도 지난 70년대, 80년대 대학내 복식문화의 변천이 대강 떠오르는 것 같다. 70년대의 대다수 대학생들은 특별히 의모에 신경을 쓰지 않은것 같다. 특히 남학생들은 머리속에 든 것만 많고, 가슴속에 품은 뜻이 크기만 하다면야, 겉모양이 아무리 남루한들 어떠랴 하는 태도가 많았다. 또 약간 세련되지 못한 외모의 여학생은 좌하고 순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현재까지도 대다수 많은 남녀 대학생들에게서 발견되는 것 같다.

그러다가 70년대말 80년대초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우리것을 찾자"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음악도 국악을 듣기 시작하고 미술에서는 민중민술이 나타났다. 이때 처음으로 복식을 의미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운동권 학생들이 민족자존 등의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한복을 그리한 움직임의 한 상징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에서 여성한복은 자주 쓰이지 않았다. 내일으키는데 반해 여성한복은 국민적 반공정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아무튼 이때부터 복식의 이미지 전달 기능은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80년대 후반 한국경제가 혹자로 돌아섰다고 온 국민이 뿌듯해 하고 수입의류 광고가 잠지마다 실리자 일부 대학생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겉모양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되었다. 의복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한다던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찾아내려 하지 않고 좋은 옷이란 무슨 상표를 단거고 그러한 고급 옷을 입는 흐름에서 벗어나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옷사치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각 개인의 개성에 맞는 옷보다 몇몇 잡지와 디자이너가 유행이라고 말한 것을 허겁지겁 입어서 그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애쓰던 허망한 형태가 일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나타났었다. 그들은 각자가 가진 젊음을, 한참 아름답고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색깔로 아름다운 그 젊음을 밝게 빛내보지도 않고 스스로 비싼 옷의 응달 속으로 젊어 들어 갔다. 원만하고 출집게 영위해 갈 수 있다.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첫번째로 점하게 되는 외모를 통하여 자신의 매력을 표현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자신의 매력이란 잘 생긴 얼굴이나 신체 뿐만이 아니라 옷차림, 자세, 표정, 몸짓, 목소리, 눈빛 등등 소위 분위기라는 것까지 포함하여 총체적인 것이다. 이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즐거움은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생각을 타인에게 정확히 전달했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은 무궁무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타인과 이를 나눌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재미 없겠는가.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매력들을 외모로 전달하고 표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생략하고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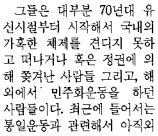
나름은 어떻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글을 쓰는 것과 같다. 우선 중요한 것은 표현할 무엇이 자기 안에 풍부해야 한

建時鐘 해방시대에 벗지못한 유랑의 짐

지난 20일 윤한봉씨가 미국에서 귀국했다. 80년 광주항쟁당시 수배를 받아 지금까지 마지막 수배자로 남아있던 그는 정부의 귀국허용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것이다. 그의 이름은 또다른 살아있는 '광주'였다.

그가 미국으로 밀항, 망명을 할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까지 귀국하지 못하고 머나먼 이국땅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설운 세월을 보낼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땅에서 빛고을이 전혀 이야기되지못했던 시대상황과 마찬가지였다. 이제 변화된 상황아래 그는 고국의 품에 돌아왔지만 그의 귀국이 광주문제 해결의 종착점은 아니다. 그 귀국이 예전의 정책보다 진일보한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재평가받고 이루져야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윤한봉씨의 경우처럼 국내 민주화의 진전과 변화된 환경·여건에 의해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먼 이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적지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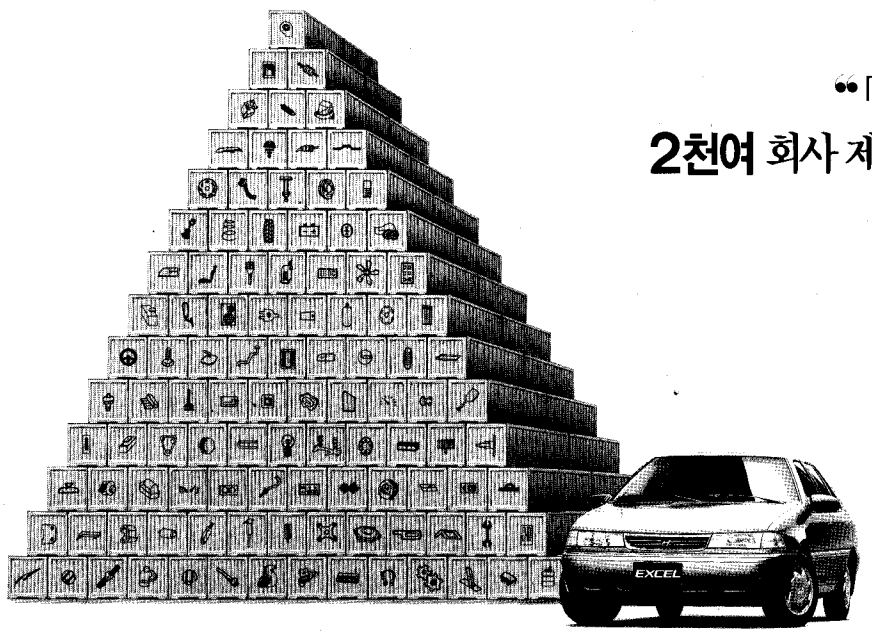


그들은 대부분 70년대 유신시절부터 시작해서 국내의 가혹한 체제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거나 혹은 정권에 의해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해외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통일운동과 관련해서 아직외국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당국의 불허로 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작가 황석영씨의 귀국을 볼수 있다. 독일과 미국에서 범민련 활동을 하다가 귀국한 그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있다. 또한, 비슷한 예로 독일에 있는 유명한 작곡가 윤이상씨도 볼수 있다. 그도 그의 통일운동에 대한 문제로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지 못하다. 전대협대표로 독일로간 성용술, 박성희등도 그 내열에 끼여있다.

물론, 앞서 윤한봉씨의 경우나 후자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 전자는 이제 다시 재조명받는 문제(물론 미흡하지만)이고 정부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지만, 후자는 아직도 서로 경색되고 굳어있는 남북관계때문 일수도 있다. 다시말해 통일정책과 문제는 그동안 여러부분에서 많은 교류와 진척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별로 바뀐 것이 없는 탓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익환, 임수경의 석방등 획기적인 조치를 내어 놓았다면 그들의 귀국도 그리 어렵게만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들도 이전 역압의 시대의 희생자들이라면 이제는 당연히 그 '유랑'의 짐을 벗겨야 할 때라고 본다. 그들에게는 김영삼대통령의 말대로 '잊지는 말되 과감하게 용서함으로써 새롭게 화해하자'라는 말이 통용될수는 없을까?

(송보영 기획부장)



"「엑셀」1대를 수출하면
2천여 회사 제품도 함께 수출됩니다"

30여만명의 고용효과, 2천여 중소기업 육성

자동차 1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2만 5천여 부품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산업은 종합기계산업의 꽃이라 합니다.

자동차 1대의 조립-이와 관련된 부품업체와
인원수만 해도 2천여 업체에 30여 만명에 달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수많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육성과
산업인력의 고용증대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40여개국에 수출되는 자랑스런
우리의 민간외교관-현대자동차

올해로 창사 25주년을 맞는 현대자동차는
우리손 우리 기술로 만든 자동차를
세계 140여개국에 220여만대를 수출함으로써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하였습니다.
아시아는 물론 미국에서 자동차의 본고장 유럽까지
5대양 6대주를 달리는 현대자동차-
수출을 통해 외화획득은 물론
한국의 긍지를 세계에 드높여가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